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모두가 구세주라고 믿고 산 수사들 얘기

이상영(운영위원, 충북대 법학교수)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옛날 옛날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에는 그 수도원에 수사들도 많았고 찾아오는 이들도 많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듬뿍받아 권위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점점 쇠락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남아 있는 수사도 어른수사와 5명의 수사밖에 안됐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그 수도원을 지나치던 목자는 수도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오는 수사들의 요청에 '수도원 내에 구세주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6명의 수사들은 그 대답에 의아해 하며 각각은 모두 자신 스스로는 구세주가 아닐 것이니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세주일까 궁금해하며 지냈습니다.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원칙을 우겨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륜이나 경험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어른수사가 혹시 구세주일까, 아니면 돌덩이처럼 뭉개고 앉아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아 음흉해 보이는 하지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닦아가는 수사가 구세주일 거야. 아니, 뒷처리도 못할 일들만 벌려놓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수사가 우리의 구세주일 거야...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여지없이 끄집어내어 남과 잘 다투기는 하지만 자신의 일만은 완벽하게 처리하는 ㄷ수사가 구세주가 아닐까. 맞다! 우리 수도원의 일상을 늘 불만스러워하며 통통거리기는 하지만 모든 이에게 정도 많이 베풀고 남이 힘들 때는 항상 옆에 있어주는 ㄹ수사가 구세주일 거야. 아니야 가끔은 철없이 투정부리기는 하지만 순진무구하여 하늘과 같은 맑음을 가지 막내 ㅁ수사일 거야.

6명 수사는 모두 자기 아닌 다른 수사들 중 그 누구가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를 대할 때 우리 수도원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대하고 조심스럽고 존경으로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6명 수사 모두는 점점 서로서로가 더욱 존경하고 믿고...그 빛은 수도원에서 퍼져 나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원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 사업보고

(3월 세째주~4월 들째주)

\*\*\*\*\*

## <제27차 운영위원회>

### 9월 인권영화제 열기로

◎ 지난 4월10일 밤 10시부터 서준식 대표의 집에서 열린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인권하루소식> 창립 3주년에 맞춰 인권영화제를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서준식 대표, 백승현 운영위 간사, 광노현, 김당, 이상영, 장호순 운영위원과 박래군 사무국장이 참가해 약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 국제인권법 책자는 현재 집필자중 광노현, 신혜수, 조홍식 교수들의 원고가 안 들어왔고, 이성훈씨의 원고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준식 대표의 원고는 류은숙씨의 원고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가제를 '국제인권의 문제'로 정했습니다. 원고의 내용과 수준이 일정치 않은 점이 있으므로 이를 광노현 위원이 맡아 검토하고, 출판까지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재소자의 권리 책자는 대폭적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대화형식으로 서준식 대표가 집필중이며, 집필이 끝나는대로 감수팀의 감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호는 6개월 단위로 묶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다음 합본 6호는 오는 7월경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 매월 1백만원씩 누적되고 있는 재정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자문위원 확대 방침이 운영위원들 사이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4월10일 현재 이상영 운영위원 2명, 김당 운영위원 1명). 다른 운영위원들도 자문위원을 확대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권하루소식> 독자배가운동을 4월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서대표 출국 이후 운영위원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부대표 보선을 포함하여 실수 운영위원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를 강화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차기 운영위까지 새 운영위원을 추천키로 하였습니다. 기획·연구위원회 조직도 다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주년(9월7일) 기념행사로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상영 위원과 사무국에서 사업기획안을 마련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 제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준식 대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인권주제 영화를 물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상영 운영위원이 제안한 인권영화제를 포함한 '인권 페스티벌'은 차기회의에 기획안을 이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 류은숙씨가 요청한 연수기간 연장건에 대해서는 3개월간 어린이청소년권리와 관련한 작업을 하느라 시간을 뺐긴 것을 고려하여 연수시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해외 연수와 관련된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해외연수원칙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키로 하였습니다. 강기훈씨가 신청한 보직신청의 건은 4월1일부로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을 추인하였습니다.

◎ 고문방지조약 민간보고서 작성에 참여키로 하고, 이에 기획·연구위원회가 결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정식 기획·연구위원회의 구성 이전까지는 이의 추진을 박래군 사무국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 차기회의 일정과 장소는 추후 통보키로 하였습니다.

□ 서대표 다시 미국에 오는 6월 귀국 □ 서준식 대표가 귀국 3개월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지난 4월12일 출국한 서대표는 치료중인 큰딸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6월말 가족들과 함께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

대표는 이번에 출국하여 미국 내의 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알아보고, 인권영화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노수석 대책위 참가

지난 3월29일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연세대학생 고 노수석 학생의 장례식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일 열려 노군의 시신은 망월동에 안장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애국학생 고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정권 살인폭력진압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사건 발생에서부터 장례 때까지 제민주단체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설문조사 실시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95년 인권보고서 한국 부분에 대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무부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통신서비스 약부호 문제등 해결 안돼

<인권하루소식> 하이텔 서비스가 한국통신의 횡포 때문에 약부호 허가가 나오지 않아 계속 불편하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 통신을 통한 인권법률상담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는 5월 중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임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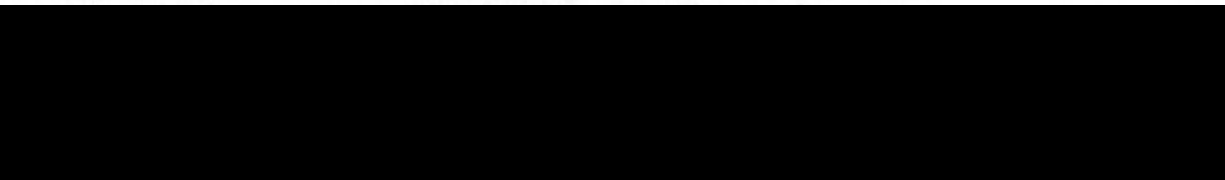
## 96-04분기 재정보고('96 03/16-04/15)

전기이월: -1,581,228원

수 입		지 출	
자문,운영위원회비	2,727,100	활동비	4,620,000
하루소식구독료	3,385,680	사업비	90,000
후 원 금	450,000	발송비	620,120
사업 수익	106,100	사무비품	323,200
은행 이자	450	사무실유지(집세포함)	612,150
기타수익	810,100	야근자·자원봉사자 식대	204,300
<b>차 입 금</b>	<b>4,400,000</b>	차입금상환	800,000
		전화요금	878,797
		사무기기	350,877
		기 타	447,000
<b>계</b>	<b>11,879,430원</b>	<b>계</b>	<b>8,946,444원</b>

결산잔액 1,351,758원

<96년 2월 운영·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표기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지로용지가 중간에서 분실되어 누락된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에 누락된 분들은 다음 호에 명단을 꼭 실겠습니다.

\* 재정이 매달 1백만원 정도씩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회비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운영을 위해 매우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매달 회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자료 소식

\*\*\*\*\*

이번 자료 소식에는 AN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에서 시민의 권리를 다룬 단행본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단행본 시리즈는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권리의 주체인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권리 주체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인권관련 출판물이 황무지인 우리 현실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단행본은 자료실에 연락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THE RIGHTS OF PRISONERS/ David Rudovsky등 지음/ 127쪽/ 88/ EN

: 미국 현행법에서 수감자들의 법적 권리를 다룬 안내서이다. 교도소내의 잔인하고 불공정한 처우, 종교의 권리, 인종차별, 의료, 재활, 여성 수감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 ◆THE RIGHTS OF CRIME VICTIMS/ James Stark등 지음/ 440쪽/ 85/ EN

: 재판 및 공공기관에서 범죄희생자들이 보장받아야할 기본적 권리를 서술하고 있다. 범죄희생자들의 법적권리, 손해배상, 위협으로부터 자유 등을 다루고 있다.

## ◆THE RIGHTS OF PATIENTS/ Georg J. Annas지음/ 312쪽/ 95/ EN

:환자, 가족, 의료진들이 알아야할 법적 권리를 다루며 응급처치, 의료기록, 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쟁점으로 다루었다. 또한 환자권리장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THE RIGHTS OF TEACHERS/ David Rubin등 지음/ 350쪽/ 93/ EN

: 질 높은 교육은 교사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보장이란 관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 ◆THE RIGHTS OF LESBIANS AND GAY

## MEN/ Nan D. Hunter등 지음/ 220쪽/ 95/ EN

: 이 책은 레즈비언과 게이의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 집회·결사, 고용, 주거, 가족관계, 범죄, HIV에 있어 동성애자들의 법적 권리를 소개하고 있다.

## ◆THE RIGHTS OF ALIENS AND REFUGEES/ David Carliner등 지음/ 240쪽/ 93/ EN

: 이 책은 미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난민의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씌여졌다. 외국인과 난민이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확장시키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 ◆YOUR RIGHT TO GOVERNMENT INFORMATION/ Christine M. Marwick지음 / 252쪽/ EN

: 연방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The of Freedom Information Act and Privacy and the Privacy에 근거해 정부기록에 접근하고 정부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 ◆THE RIGHT TOO PROTEST/ Joel M. Gora 지음/ 344쪽/ EN

: 미국 헌법상에 나타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역할, 특징, 조사기법, 감시활동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 ◆THE RIGHTS OF OLDER PERSONS/ Rober N. Brown등 지음/ 413쪽/ 94/EN

: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안정적 수입과 고용문제, 의료보장, 사회보험등을 다루고 있다.

## ◆THE RIGHTS OF RACIAL MINORITIES/ Laughlin McDonald등 지음/ 288쪽/ 96/ EN

: 인종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법률-고용,교육,주거, 선거-이용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 ◆THE RIGHT TO RELIGIOUS LIBERTY/ Barry Lynn등 지음/ 128쪽/ 95/ EN

## ◆THE RIGHTS OF AUTHORS, ARTISTS, AND OTHER CREATIVE PEOPLE/ Kenneth P. Norwick등 지음/ 295쪽/ 95/ EN